

논문접수일 : 2013.06.20

심사일 : 2013.07.03

게재확정일 : 2013.07.23

## 근대 가구 디자인의 유형 분류와 양식적 특징

The Style Characteristics and Type Classification of Modern Furniture Design

이 옥 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디자인학

**Lee Oak-boon**

Kookmin university

## 1. 서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1.2. 연구 범위와 체계

## 2. 근대 주거 공간의 등장과 유형

- 2.1. 전통주택의 개량: 도시형 한옥
- 2.2. 외래주택의 유입: 문화 주택

## 3. 가구의 근대적 변화

- 3.1. 공간 기능에 따른 가구 배치
- 3.2. 좌식과 입식 가구의 이원화
- 3.3. 가구의 개별성과 기능성 강화

## 4. 근대 가구의 디자인 분석

- 4.1. 한일 전통 가구의 양식 비교
- 4.2. 근대 가구의 유형과 특징
  - 4.2.1. 한식 개량형
  - 4.2.2. 화양 절충형
- 4.3. 모던 디자인 시스템의 도입

## 5.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이 연구는 거주 공간이 근대화되면서 나타난 가구의 근대적 변화를 고찰하고 가구 디자인의 유형을 분류하며 그 양식적 특징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한국 가구 디자인의 근대적 성격을 밝히며, 그 스타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범위와 대상은 근대적 거주 공간이 확립된 일제시기의 생활공간용 수납 가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공간이 근대화되면서, 가구는 각 실의 기능에 따라 재배치가 이루어졌고, 수납 효율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했으며, 입식 공간이 생겨 좌식과 입식 가구로 이원화되었다.

둘째,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구 디자인은 한식 개량형, 화양절충형의 두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두 가지 유형의 양식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식 개량형은 전통 가구의 기본형이 유지되면서 공간 활용과 수납 기능을 높여 변형되었다. 화양절충형은 외래 가구의 기본형과 문양이 섞인 형으로 근대 가구 형식의 기본 틀이 되었다. 서양 가구를 기본으로 일본에서 개량된 양가구가 대표적이었다.

넷째, 두 가지 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조형 방향으로 모던 가구가 일본으로부터 소개되며, 기능주의적 조형 개념과 표준화의 생산 방식이 일부 도입되기 시작했다.

### 주제어

생활공간용 수납 가구, 한식 개량형, 화양 절충형

###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and classify the furniture design considering modern changes of furniture while the residential space is modernized. The scope of this study show the modern characteristics of Korean furniture design and arrange systematically the modern style. The target of this study focused on the cabinet for residential space in Japanese colonial period that modern living space has been establish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idential space is modernized, furniture was re-arranged depending on the function of each room and chang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torage and divided into dual category, sitting furniture and Western Style furniture as stand-up space generated.

Second, modern furniture design can be classified into 2 types, improved Korean style, compromised model of Japanese/Western type.

Third,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ese 2 types are as follows. The improved Korean style was modified by improving space application and cabinet function while keeping the basic type of traditional furniture. The compromised model of Japan/Western was a mixed form blending the basic type and the pattern of foreign furniture, and it was the basic structure of modern furniture. Based on western style furniture, type compromised furniture improved in Japan was typical.

Fourth, the modern furniture as a new stream was introduced from Japan and some functional formative concept and a production method of standardization was partly started introducing.

### Keyword

cabinet for living space, improved Korean style, compromised model of Japan/Western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주거 공간은 개항기 서양과 일본 주택이 들어오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근대화의 한 축을 이루는 큰 변동을 겪는다. 거주 공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 사물의 변화를 동반한다. 가구 디자인 역시 근대적인 성격을 띠며 변화했고, 여러 유형으로 나타났다.

근대 가구에 관한 연구는 공예 전공 연구자를 중심으로 양식적 특성을 분석한 논문이 다수 있으나,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근대 가구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못한다. 이 연구는 가구의 근대적인 변화가 주거 공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등장하고 사라진 가구 디자인의 유형을 밝히고 그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데 집중했다. 이 연구는 한국 가구의 근대 역사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1.1. 연구 범위 및 체계

한국의 근대 가구 디자인을 유형과 양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 연구의 관점은 주거 양식적 맥락에 바탕을 둔다. 김국선은 가구 양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자연환경, 사상종교, 주거양식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중에서 주거 양식적 배경은 주택의 공간 배치와 구성, 실내 가구의 장식적 특징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요인이며, 가구의 기능, 배치, 구조, 형태를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김국선, 2004, p95) 주거 양식적 관점은 이 연구가 지향하는 근대적 공간의 진행 속에서 나타난 가구 디자인을 살펴는 주된 맥락을 이룬다.

연구 범위와 대상은 근대적 공간이 확립된 일제시기의 생활가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일제시기의 주거와 가구 양식은 현대 디자인의 시작점으로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대한 제국기에도 외래 가구가 유입되었으나, 일부 최상류층의 생활환경에 들어왔을 뿐, 대중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생활가구로 한정된 것은 생활가구가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구는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 생활공간, 접객공간, 서비스공간 가구로 분류하거나, 용도에 따라 기저용, 수납용, 문방용, 주방용, 의식용 가구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김진옥, 2006, p113) 이 연구는 주거 양식적 관점에 따라 생활가구에 집중했다. 생활가구는 민간인이 제작

한 가구만이 아니라 공업전습소와 조선미술전람회 등 기관에서 선보인 가구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가구는 전시가 끝난 후 민간에게 판매되면서 일상 속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 가구 중에서도 수납용 가구로 한정하였다. 수납용 가구는 일반적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 대형이며 벽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만큼 공간의 전체적인 외관과 관계 깊으며 주거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수납가구가 발달한 이유도 이러한 범위 설정의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범주 설정은 가구 양식의 특징을 분석하는 주요 기준이 되었다.

연구 체계는 먼저 일제시기 대표적인 주거 공간의 유형을 살펴보고 공간의 근대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 주거 공간의 변화에 따라 변형되거나 새로 도입된 가구를 수집하면서 가구의 배치와 기능적 측면에서 근대적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근대 유형과 양식의 분석은 한일 전통 가구의 특성 비교를 기반으로 근대적 특징으로 연결하였으며, 가구의 양식을 집산화하여 유형화하고 조형의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 근대적 공간 속에서 가구 디자인이 서로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변화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근대적 가구 양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 2. 근대 주거 공간의 등장과 유형

1876년 개항과 함께 들어 온 서양식, 일본식의 새로운 주택은 한국의 주거공간이 근대적인 구조로 변화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30년대 도시형 한옥과 문화주택은 기능적인 근대적 주거로 나타난 대표적 유형이었다. 도시형 한옥은 전통한옥을 도시 생활에 맞게 개량한 가옥이었고, 문화주택은 상류층 중심으로 유행한 서구와 일본식을 절충한 주택이었다. (전남일, 양세화, 홍형옥, 2008, p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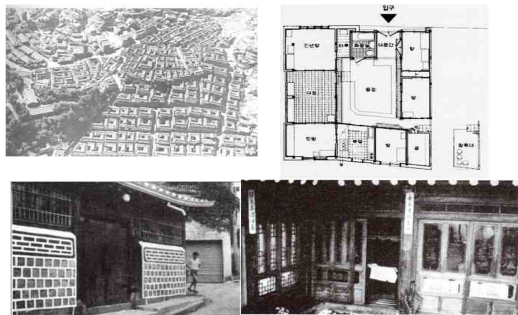
### 2.1. 전통 주택의 개량: 도시형 한옥

전통 주택은 온돌과 마루, 부엌으로 구성되고, '부엌-방-마루-방'으로 배열된 네 칸 집이 가장 기본적이며 전형적인 구조이다. 여기에 각종 기물을 보관하는 지원 공간과 마당과 같은 공용 공간이 포함되었다. 전통 주택의 공간 구조와 주거 형식, 규모는 조선의 가부장적 윤리와 삼강오륜의 가정 도덕과 사회 윤리에 의해 결정되었고, 여기에 산지가 많은 자연 환경적 특성과 기술적인 측면에 따른 특성이 결합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김국선, 2004, p79) 일관

관 구조나 형식 없이 시대적,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였지만, 대체로 안채와 사랑채로 공간이 뚜렷이 나뉘고, 여러 채로 구성되어 공간이 분산된 특징을 보였다.

도시형 한옥은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분에 따른 주택 건설의 제약이 없어지고, 유통 체계가 발달하여 자재 공급이 원활해지는 등 사회구조적인 여건이 형성되면서 등장했다. (전봉희, 권용찬, 2012, p21) 이러한 물리적인 기반 아래 생활개선운동이 펼쳐지면서 도시형 한옥의 개선 방향을 이끌었다. 이 운동은 전통 한옥은 어둡고 통풍도 좋지 않으며 불편한 데 비해 서구 주택은 공간배치가 합리적이어서 편리하고 위생적이므로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한옥을 개량하자고 주장했다. 도시형 한옥은 가회동, 계동 등 한인 밀집지역에 대규모로 건설되어 한옥촌을 구성했다. 전체적으로는 상류층의 한옥 구조와 재료를 유지하면서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을 집중 배치하고 유리나 벽돌 등 근대적 재료를 일부 혼용해 소형으로 지었다. 구조는 기하학적으로 분할된 필지에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 ㄴ자 또는 안채와 문간채를 붙여서 ㄷ자, ㄹ자형으로 배치했다. 또한 대청에는 유리문을 설치해 내부 공간으로 활용했다. 대청이 내부 공간화하면서 마당과 경계가 생겨 내외부 공간이 분리되었다.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pp88~96)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수세식 변소와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조리 기구가 들어오는 등 주거 설비 기술의 발달은 공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봉희, 권용찬, 2012, p133)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 전통 가옥에 비해 건물을 집중 배치하고, 내외부 공간을 분리하며, 동선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한 형태였다. 도시형 한옥은 전통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근대로 들어가는 흐름에서 나타난 주거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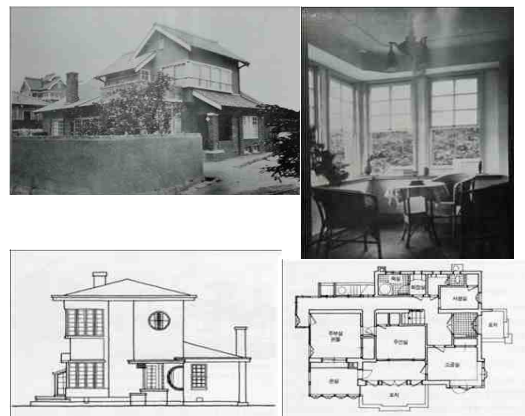


[그림 1] 1935년대 건축된 가회동 한옥촌과 ㄹ자형 건물 구조 (무애연구소, 1986)

## 2.2. 외래 주택의 유입: 문화 주택

문화주택은 1920년대 일본에서 등장한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이 있는 근대적 설비를 완벽하게 갖춘 화양절충식 집을 말했다. 등장 초기에는 일본주택과 서양주택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버려 새롭게 재구성한 일본 주택의 미래 방향으로, 근대 생활의 이상적인 형태로 이해되었다. 문화주택에서 '문화'의 의미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에 새롭게 적용되는 가치로 통용되었으나, 점차 문화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주택만이 아닌 새로운 것 어디에도 붙는 접두사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문화주택은 하나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서양식 주택'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경아, 전봉희, 2005, pp97~102) 이 주택형식은 곧바로 한국에도 들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일본과 서양식을 절충한 이 형식은 한국 생활에 적합하도록 또 개량되었다.

문화주택은 개량 한옥처럼 안채와 문간채가 나뉘는 구조가 아닌 한 건물에 모든 방을 배치하는 내부 집중형 구조이고 외부에는 정원을 두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있고 복도가 각 공간을 연결했으며, 응접실과 개인적으로 독립된 방과 입식 부엌, 식당, 욕실과 화장실이 있으며, 2층에는 서재나 침실, 접객 공간이 있었다. 실내 마감은 다다미, 마루, 리놀륨과 같은 일식, 한식, 양식의 재료가 섞였다.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pp96~113) 문화주택은 소수 상류층과 일본인이 건축하여 살았지만, 해방 이후 다다미와 같은 일본식은 사라지고 '붉은 벽돌 2층 양옥집'으로 대표되는 한국 근대 주택으로 이어졌다. 문화주택은 전통 한옥을 개량한 주택과는 다른 근대 생활의 표준이자 이상적 모델로 여겨졌다. (전봉희, 권용찬, 2012, p182)



[그림 2] 1930년대 문화주택과 건물 구조도 (朝鮮의建築, 1936)

근대 주택에 대한 고찰 결과, 주거 공간이 집중화, 내실화, 효율화, 기능화, 개별화되었으며, 이러한 방향에서 입식공간이 생기고, 각 실이 독립된 기능을 지니며 서로 효율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공간의 근대적 특성으로, 이를 전통 주택과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분류	전통 주택	근대 주택	
		도시형 한옥	문화 주택
구조	방, 마루, 대청, 부엌, 마당	방,마루,대청,부엌, 화장실,마당,현관	침실,부엌,식당,욕실,화장실,서재,응접실,현관,발코니
	안채와 문간채 분리	ㄱ,ㄴ,ㄷ,ㄹ형 연속 배치	일체형 건물
	내외부 생활 공간의 관계밀접	내외부 공간분리 외부생활공간 유지	내외부공간분리 외부생활공간의 소멸-내실화
재료	목재, 흙, 온돌, 창호	기존 재료 유지 근대 재료 혼용	철근, 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 근대적 재료
설비	온돌	온돌,수세식화장실,전기,가스,수도	온돌,수세식화장실,전기,가스,수도
사용 방식	좌식 기능 혼합	좌식 기능 절충	좌식/입식 공존 기능 독립

[표 1] 전통주택과 근대주택의 공간 비교

### 3. 가구의 근대적 변화

이 장에서는 주거 공간이 근대화되면서 공간 배치와 기능적 측면에서 가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다음 세 가지 범주로 결론을 얻었다.

#### 3.1. 공간 기능에 따른 가구 배치

전통주택의 방과 마루는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의 기능이 겹쳐 있었다. 방은 침실이 되기도 하고 식사나 객실 공간이 되기도 하는 등, 다용도로 융통성 있게 사용되면서 기능에 따라 구분되지 않았다. 마루나 대청 또한 조상 제사 등 집안 행사를 치르는 곳이자 곡물을 보관하는 공간이며, 손님맞이 또는 여름 잠자리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전봉희, 권용찬, 2012, p62) 근대 도시형 한옥으로 변한 후에도 온돌방이라는 이름은 계속 사용되었지만, 각 방은 침실, 아동실과 같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중심으로 개별화되었다. 또한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청에는 찬장이나, 쌀과 음식을 보관하는 뒤주와 향아리, 그리고 접시와 유리병 등 잡다한 세간이 널려 있었으나, (전남일, 양세화, 홍형욱, 2009, p53) 유리문이 달리고 난방이 들어가 내부 공간이 되면서 다른 방으로 출입하는 통로이자 거실의 역할을 했다. (연세대 국학연구

원, 2004, p88) 이러한 변화에서 예전에 있던 뒤주와 향아리가 창고로 옮겨지고, 그 자리에 소파와 탁자, 축음기, 라디오 등 여러 장식품이 놓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구의 재배치가 개량한옥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서구적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행을 일으키며, 대청에 문을 달아 응접공간을 마련하고 탁자를 배치했지만, 비좁은 대청은 소파와 탁자가 놓인 완벽한 입식공간으로 탈바꿈 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방의 통로이자 거실이며, 여러 기물을 보관하는 기능이 겹친 공간으로 유지되었다. (이태희, 2002, p54) 이처럼 개량 한옥은 근대적 주거 형식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서 부분적으로 가구의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공간 기능에 따라 가구 배치가 완성된 것은 문화주택에서 나타났다. 근대 주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문화 주택에서는 응접실을 중심으로 침실, 아동실, 서재, 주방, 식당, 화장실 등 노동과 휴식 기능에 따라 공간이 분리되었고, 공간의 기능에 맞는 가구의 배치가 이루어졌다. 개별 공간마다 가구가 달리 배치되면서 공간의 성격과 기능이 더욱 확실해졌다.

#### 3.2. 좌식과 입식 가구의 이원화

전통 주거 공간에서는 탁자나 문갑, 장, 함 등 좌식 생활에 맞춘 가구가 주를 이루며, 사방탁자나 찬장과 같은 입식 가구가 부분적으로 혼용되었다. 주거 공간이 서구식을 따라 개량되면서, 좌식과 입식 생활로 기저 양식이 변화했고 가구도 바뀌었다. 안방에는 온돌이 놓인 좌식생활의 전통적인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응접실, 서재, 식당 등은 서양풍으로 마감된 공간에서 탁자와 소파, 식탁과 의자가 있는 입식 형태로 바뀌었다. (전남일, 양세화, 홍형욱, 2009, p259)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개량 한옥에서는 입식 공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좌식 가구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입식 가구가 가장 먼저 도입된 곳은 주방으로, 주방은 1920년대 주택개량과 생활습관의 쇄신 운동에서 채광과 통풍, 다른 방과의 연결 문제, 설비 면에서 가장 전근대적 공간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입식 개량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전남일, 양세화, 홍형욱, 2009, p292) 문화 주택에서는 좌식과 입식 공간이 뚜렷이 구분되고 그에 따라 가구가 들어가면서 좌식과 입식의 이원화가 확실해졌다.

#### 3.3. 가구의 개별성과 기능화 강화

전통 주거 공간에서 사용된 가구는 안방가구, 사랑방가구, 부엌가구로 나뉘어 사용되면서 가구 자체의 용도가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주거 공간이

기능적으로 분화되면서 이에 따라 기존 가구가 개량되거나,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는 가구가 도입되었다. 소파는 거실 공간이 형성되면서 가족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새로운 공용가구였으며, 소파 옆에 응접테이블은 소품이나 전화기를 올려놓기 위한 작은 가구였다. 전통 가옥에서 의자는 제례용 외에는 거의 없었으나, (김국선, 2004, p158) 식탁과 함께 필수품이 되었고, 거울과 서랍이 달린 화장대 또한 전통가구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가구였다. 서랍장은 수납 기능을 향상시킨 기능적인 가구로 반닫이를 없앤 자리에 대신 들어갔다. 전통적으로 반닫이는 안방에 들어가는 좌식용 수납가구였으나, 서랍장으로 대체되거나 수납 기능을 향상시킨 형태로 변형되었다. 또한 일본식 성향이 강한 주택에는 벽에 수납 기능을 넣은 일본식 반침이 설치되었다. 장이나 농도 의류와 이불을 보관하는 장롱으로 기능이 뚜렷해 졌다. (박민정, 1993, pp44~49) 서랍장, 화장대, 장롱, 장식장 등 가구 자체의 변화는 각 개별적인 공간에 맞는 기능성을 향상시킨 형태로 나아갔다. 기능에 따라 가구가 개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가구의 종류와 수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가구의 변화는 식당이나 거실처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먼저 나타났고 점차 개인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분류	전통 가구	근대 가구
기능	좌식 사용 공적/사적 기능 혼합 가구의 다용도 활용	좌식/입식혼용 공적/사적 기능 분리 개별 가구의 기능성 향상
배치	좌식 가구 중심 용통적 배치	좌식/입식 가구의 분리 공간 기능에 맞는 가구 배치
분류 기준	주택 구조에 따른 분류 (안방,사랑방,부엌가구)	실의 용도에 따른 분류 (침실,서재,응접실,부엌가구)
주요 가구	안방-장,농,반닫이,문갑,함 사랑방-장,의거리장,문갑 탁자장,서안,사랑탁자	침실-장,침대,화장대,서랍장
	부엌-찬장,찬탁,뒤주	서재-책상,의자,책장 응접실-소파,탁자,장식장
		부엌/식당-식탁,의자,찬장

[표 2] 거주 공간의 전통/근대 가구 비교

#### 4. 근대 가구의 디자인 분석

근대적 가구는 재료와 기술, 설비 등이 뒷받침되고, 관련 전문가가 등장하며, 유통 통로가 마련되면서 일상 속으로 확대되었다. 근대적인 생활로 개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화양절충 형식이 확대되고, 모던 시스템의 가구 제작 방식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구 양식의 변화를 수납 가구로 한정하여 구조, 형태,

문양, 금구장식, 재료 및 표면 가공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조형 요소가 이루는 전체적인 미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틀을 사용하여 한일 전통 가구를 비교하고, 전통 가구가 근대 가구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형식을 분류하고 그 양식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 4.1. 한일 전통 가구의 양식 비교

전통 가구는 설계나 규격화된 생산 과정 없이 생활 속에서 개별적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을 거쳐 수정과 변형을 거듭하여 일정한 유형으로 정착되었고 용도와 재료, 제작된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김국선, 2004, p79) 전통 가구의 조형성은 유교적 바탕 위에 검소하고 안정된 느낌으로 단순한 구조, 균형감 있는 비례, 간결한 선, 자연의 목리 등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배만실, 1988, p68) 전체 형태는 정방형이나 장방형을 기본으로 하여 좌우 대칭형으로 구성했고, 풍혈구조와 다리를 부착했다. 풍혈구조는 바닥의 온도변화에 따른 목재의 수축과 팽창을 막는 다리와 가구 밑면의 연결부를 말했다. 가구의 전체적인 크기는 좌식생활의 시선이나 편리성을 고려했다.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 않도록 세로 폭을 얇게 하고 낮게 제작했으며, 장이나 농, 탁자류는 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하고, 문갑이나 반닫이류는 앉은 키를 기준으로 크기를 결정했다. 형식 또한 좌식 생활에 편리한 여닫이문 형태가 많고 수납장 가구가 주를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꾸밈새를 강조하지 않았으나, 안방가구에서는 금구장식이나 문양으로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였다. 또한 실내 공간에서 방의 가장 안쪽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가구가 펼쳐지도록 배치하여 비대칭적 비례감을 형성했다. 문양은 장식적인 목적보다는 주술적인 염원을 내포하였으나, 화려하게 처리해 실내의 단조로움을 상쇄시켜주는 장식 역할을 했다. (김진옥, 2004, pp127~138)

이에 비해 일본 전통 수납 가구인 단스와 다나는 비대칭적인 형태와 단순한 창살무늬와 같은 기하학적인 장식이 많고, 서랍장 가구가 주를 이루며, 다리를 달지 않았다. 비대칭적인 형태는 단순한 직선 구조의 외형이 주는 단조로움을 덜어주었고, (김진옥, 2006, p118) 문양은 매우 화려하게 처리한 것과 소박한 자연의 미감을 살리는 형식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일본 가구의 구조는 다다미 바닥과 관련이 깊었다. 온도와 습도가 비교적 안정적인 다다미 위에서 사용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포개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다리를 달지 않았다. 또한 다다미는 주기적으로 갈아주

어야 했기 때문에 이동에 필요한 손잡이나 고리, 바퀴를 달기도 했다. 대체로 키가 낮고 작은 가구가 발달했고, 큰 수납 가구는 벽장으로 건축화 했다. (김국선, 2004, pp157~226) 가구를 꾸미는 장식 요소 또한 기능적 측면을 보완하여 들어갔다. 이러한 조형특징은 한식에 비해 수납이나 이동에서 기능적인 면이 강한 성향을 반영했다.

전통가구와 유사한 점은 좁은 실내공간과 좌식 생활을 반영하여 높이와 크기가 작은 가구가 발달했으며, 가구를 벽에 붙여 배치하는 공간 구성에 따라 조형적 미감을 구성하는 요소를 가구 전면에 집중시켰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간결한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측면이었다.



[그림 3] 위-한식 /삼층장, 이층장, 원앙반단이, 의거리장, 사방탁자 (배만실, 1988)  
아래-일식/ Hako kaidan dansu, Isho dansu, Kuruma dansu, Zushi dana, Kuro dana (김국선, 2004)

분류	한식 전통 수납 가구	일식 전통 수납 가구
종류	장, 농, 의걸이장, 반단이 등	단스(서랍형 수납장) 다나(선반형 수납장)
구조	여닫이 문, 수납장 형식 풍혈구조	서랍장 형식 풍혈 구조 없음, 이동성
형태	장방형, 정방형 좌우대칭형	장방형, 정방형 비대칭형
문양	보상당초문, 십장생, 사군자, 귀갑문 등 선면 분할의 창살무늬 전면 집중	상징 동식물의 사실적 묘사 회화적 표현 기하학적 구성 창살무늬 전면 집중
금구 장식	구조 보강과 장식 자연적 문양 의식화된 관념적 문양	구조 보강과 장식, 운반기능 단순 기하학적 문양 주술적, 사실적
재료 가공법	투명 옷칠, 생칠 나전, 주칠, 흑칠	마끼에 등 불투명 도장법 투명 옷칠
미감	간결한 구조, 면분할의 비례미, 선과 면의 대비 자연 목리의 소재감 문양의 변화와 리듬감	기하학적 단순미 선분할의 비례미 자연 목리의 소재감, 비대칭형태의 장식적리듬감

[표 3] 한식/일식 전통 수납가구의 비교

## 4.2. 근대 가구의 유형과 특징

### 4.2.1. 한식 개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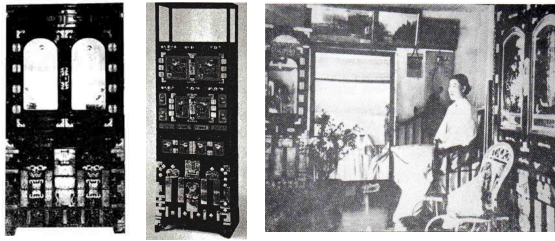
일본식 가구는 개항기 일본인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본국에서 가져오거나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일본인 가구 제작자가 국내에 들어오고 이들에 의해 민간의 가구 제작에 영향을 주면서 전통 가구는 일본식의 장점을 수용하여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개량 범위에서 크게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단순형 : 기능 강화

단순형 개량 가구는 한식을 기본 구조로 두고, 좁은 공간에서 수납 활용성을 높이는 구성과, 거울과 유리를 부착하여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형이 비교적 간단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 유형을 단순형으로 분류했다.

일본식 성격을 일부 절충한 전통 가구는 일제시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가구를 포개 놓아 위 공간을 활용하며 수납 기능을 확대한 형식이었다. 대체로 하단에 반단이를 놓고 위로 문갑이나 장, 탁자를 올려서 (이태희, 2002, p30) 다목적 가구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가구는 전통 반단이에 의걸이장을 올려놓은 것으로, 거울을 부착한 형태이다. 금구장식이 크고 화려해졌다. (신영식, 1990, p21) 금구장식이 지나치게 화려해지는 것에 대해 박길용과 같은 건축가는 개량 가구가 구조를 도외시하고 외적 장식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태희, 2002, p26) 이처럼 금구장식을 많이 넣을 수 있었던 것은 금구의 생산이 수월해졌고 제작비가 떨어졌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이것은 금구가 직사각형의 낫쇠나 황동 주물로 단일화된 것으로 보아 생산 과정에 표준화와 분업체계가 존재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이태희, 2002, p23) 이러한 생산 체계가 도입되면서 가격이 낮아져 장식을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거울이나 유리와 같은 새로운 재료가 들어가면서 재료를 가공하는 새로운 기법도 도입되었다. 거울 위에 장수와 복을 기리는 간단한 초문이나 문양을 예리한 숫돌로 갈아서 넣는 기법이었다. (신영식, 1990, p22) 이것은 새로운 재료를 수용하여 전통적인 내용과 결합시키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은 먼저 받아들여도 상징적인 측면은 일정기간 유지하는 근대에 대한 수용 태도도 확인하게 해 주는 사례였다. 이러한 기능성의 확대와 부품의 표준화와 생산비의 절감, 새로운 재료의 적용, 과도기적 수용

태도는 한식 개량 가구가 근대 가구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형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 4] 일제시기 초반, 개량 한식 가구 반달이형 장, 화조5층 탁자장, 1910년대 가구가 깔려있는 기생의 방에서 반달이형 장을 볼 수 있다. (박민정, 1993, 신영식, 1990, 최공호 1996)

## (2) 복합형 : 구조 개량

다음 그림은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에 출품된 가구이다. 앞에서 본 단순형의 가구보다 한식에 일본과 서양 형식이 복잡하게 절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능을 접목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구조를 기능적으로 변형하고 도안화된 문양을 사용하며 금구장식을 단순하게 처리한 점 등은 근대적 가구 형식으로 진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형태와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의 양식적 특징을 접목한 점 역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구는 전통 반달이에 서양풍의 다리를 달아 (최공호, 1996, p308) 입식 가구로 변형한 것이다. 전통 반달이의 풍혈장식이 없고, 금구장식이 단순하고 작다. 두 번째 가구는 전통 사방탁자의 형태를 기본으로 변형한 우봉이다. (최공호, 1996, p307) 전통 사방탁자는 수평과 수직이 강조된 장방형의 형태와 다리를 짧게 하여 안정감 있으며 풍혈장식이 단순하다. 또한 인위적인 장식을 피해 목재의 간결한 색채를 유지했고, 하단부 한 단만 수장 공간이 있다. (배만실, 1988, p118) 그림의 우봉은 양 벽 사이 모서리 공간에 놓을 수 있는 삼각형 형태이며, 여러 단의 수장 공간과 풍혈장식이 복잡하며, 도안된 다양한 문양이 들어갔고, 영국의 치펀데일 양식 요소가 삽입되었다. (최공호, 1996, p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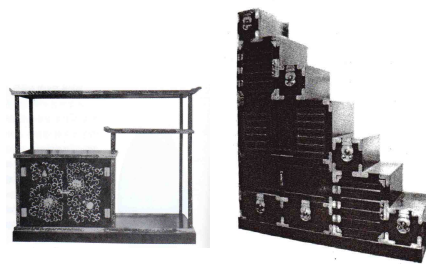
[그림 5]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 (최공호, 1996) 1938년 늦쇠다리조선장형데스크, 1937년 나전우봉

## 4.2.2. 화양 절충형

민간에서는 여전히 전통 형식을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개량한 가구를 사용했지만, 193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한식에서 화양절충식으로 전환되는 기조가 나타났다. 1941년 통계에 의하면 경성 내 화양가구 공장은 총 64개로 전통가구공장(20개)의 3배를 능가했다. 또한 화양가구 공장은 주로 일본인이 운영했는데, 1937년 넘어서는 조선인 운영 업체가 급증해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로 보아 조선인에게 화양 가구의 보급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화양가구는 일본 전통적 형태인 화가구와, 일본에서 서양 스타일을 들여와 부분적으로 변형한 양가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화양절충식은 국내에 들여와 당시의 공간 환경과 유행에 따라 다시 변형되는 과정을 거쳤다.

### (1) 화식형 : 일본 전통 가구 중심 개량

첫 번째 그림은 일본 선반형 수납장인 다나를 모방한 가구이다. 개방된 선반 공간이 넓고, 가로대를 턱지게 처리하고 왼쪽 하단에만 수장 공간을 배치하는 등, 비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천판 모서리를 곡면으로 치켜 올려 다나와 매우 유사하다. 식물을 기하학적으로 단순하게 처리한 문양은 일본 근대 가구에서 나타나는 구성 방식과 유사하다. 두 번째 역시 서랍장인 단스로 일본식 2층 목조가옥에서 계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안된 전통 형식이다. 일본식 가구이지만, 한식에서 쓰이는 금구장식이 들어가 있다.



[그림 6] 일제시기 중후반, 화양절충식 화가구 1940년 나전서봉, 계단식 수납장 (최공호, 1996, 신영식, 1990)

### (2) 양식형 : 서양 가구 중심 개량

양복장, 서랍장, 장롱 등 양가구는 이전의 가구에 비해 수납 기능에 충실한 구조와 형태를 가졌다. 첫 번째 그림은 상부에는 양복을 넣을 수 있고, 아래는 서랍이 달린 양복장이다. 한식 개량 가구에서 쓰던 금구 장식이 일부 남아 있다. 두 번째는 서랍장이며, 세 번째는 이불장과 옷장으로 구성된 장롱이다. 문양



이 거의 없고 금구 장식도 손잡이나 열쇠구멍에만 쓰여 간소하게 처리되었으며, 서랍마다 열쇠 잠금장치가 달렸다. 한식 가구의 특징인 풍혈구조와 다리가 없다. (박민정, 1993, pp43~44) 양식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재료와 제작 방식에서도 양가구는 근대적 흐름 안에 있었다. 합판을 사용해 넓고 큰 면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작 과정에서도 화양가구공장은 10여명 이상의 직공이 공정별로 작업실과 작업 내용을 달리하는 시스템 생산 방식을 갖추었으며, 전기대패와 같은 목공기계를 사용했다. (이태희, pp19~20) 양가구는 전통 형식에서 거의 탈피한 근대 가구로 오늘날 가구 디자인의 기본형이었다.



[그림 7] 일제시기 중후반, 화양절충식 양가구 양복장, 서랍장, 장롱 (박민정, 1993, pp4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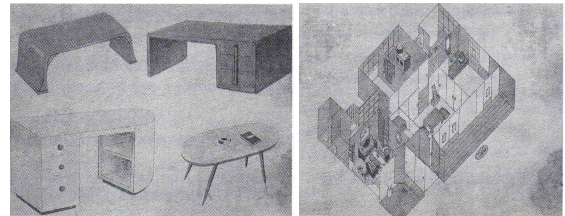
[그림 8] 화양가구로 꾸민 서재 모습과 백화점 가구 코너 (역사박물관, 2013, 김진송, 1999)

분류	한식 개량형 (단순형/복합형)	화양 절충형 (화식형/양식형)
구조	외래 기능 또는 구조 절충 기능, 효율 절충 수납 공간 확대	일본, 서양식 구조 중심 기능, 효율 중심 구조 서랍형 수납공간
형태	좌우대칭형 사각형	비대칭형 사각형
문양	도안화된 식물문 여러 문양 혼합 주술적 상징유지	도안화된 일식 문양 가구 자체의 요철 표현 단순한 기하학 면적 구성
금구 장식	구조 보강과 장식 표준 형태 등장	전통 형태 일부 잔존 간결한 장식 손잡이
재료 가공	나전칠기 가공 원목, 유리, 거울	원목, 합판 유리, 거울
미감	화려함, 복잡함	단순 투박함 자연 소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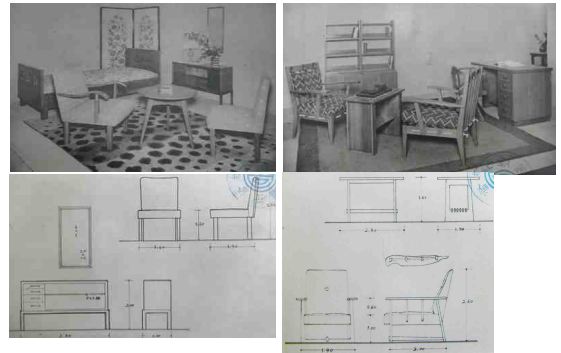
[표 4] 근대 가구의 유형 분류와 양식적 특징

### 4.3. 모던 디자인 시스템의 도입

전통 가구가 양식과 일식을 절충하여 변하는 한편에서는 전통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형식이 근대화의 모델로 소개되었다. 근대 기술 교육 기관인 공업전습소는 대량생산을 염두에 두고 표준화, 규격화한 재료로 제작하는 디자인 기법을 교육하며, 새로운 기계적 생산단계에 맞는 기술자를 양성했다. 또한 일본의 백화점에서 개최된 가구 전람회 도록이 들어오는 등 전문 디자인 그룹에서 기계미학을 구현한 기하학적인 모던 디자인 양식이 조형의 미래 방향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 시기 국내 가구 중에서 모던 스타일의 가구를 볼 수는 없지만, 제작 과정에서는 형태와 기능, 재질의 선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미리 설계하여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는 디자인 과정이 도입되었고, 생산 과정에서도 기계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최공호, 1996, p238)



[그림 9] 공업전습소에서 제작한 가구 렌더링(최공호, 1996)



[그림 10] 일본 내 백화점에서 개최된 '新作洋家具展集'에 수록된 가구들 (近代家具裝飾資料 第47編,1941)

### 5. 결론

1930년대 주거공간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재편하려는 움직임에서 근대적인 주택이 등장했다. 근대 주택은 실내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실화된 공간과 동선을 효율적으로 줄인 배치, 각 실의 기능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화와 산업화, 일본 문화의 수용과 함께 건축 재료와

설비 기술의 발달 등 물리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거공간이 근대화되면서 가구 디자인도 근대적인 형태로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가구 디자인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 자체는 개별적인 공간에 맞는 기능성을 향상시킨 형태로 나아갔다. 입식 공간이 생기고 입식 가구가 들어가 좌식과 함께 이원화되었다. 개별 공간마다 요구되는 가구가 달리 배치되면서 공간의 성격과 기능이 더욱 확실해졌고, 전체적으로 가구의 종류와 수가 증가되었다.

둘째, 근대로 이행하는 가구 디자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한식 개량형은 일제시기 초반에 나타났으며, 전통 가구의 기본형을 유지하면서 공간 활용과 수납 기능을 높여 변형한 것이었다. 전통 형식을 유지했지만, 개량형은 가구의 기능성을 확대하고 일부 부품의 표준화를 시도했으며, 새로운 재료를 적용하여 전통과 근대를 연결했다.

다음은 화양 절충형으로 전통가구에서 벗어나 외래의 기형과 문양이 섞인 형태였다. 화양가구는 일본 전통 형식을 강조한 화가구와 서양 가구를 기본으로 일본식으로 개량한 양가구로 분류할 수 있다. 193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가구 사용 추세가 한식에서 화양절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양복장 등 양가구가 화양절충식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전의 가구에 비해 수납 기능에 충실한 구조와 형태로 문양이나 장식의 간소해졌다. 근대적 가구 재료인 합판이 사용되고 표준화와 분업, 기계 생산 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양가구는 현대 가구의 기본틀로 이어졌다.

셋째, 근대 가구의 출현은 생활공간을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재편성하려는 흐름에서 나타났다. 즉 도시형 한옥과 같은 비좁은 근대적 생활공간으로, 근대적 생활양식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대응한 형식이었다.

넷째, 기계미학을 구현한 기하학적인 모던 디자인이 조형의 미래 방향으로 소개되었다. 이 시기 전통에서 완전히 탈피한 모던 스타일의 가구는 볼 수 없었으나, 형태와 기능, 재질의 선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미리 설계하여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는 디자인 과정이 도입되었고, 생산 과정에서 기계화와 표준화가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작 과정상의 변화는 근대가구 제작에서 일부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통 가구에서 근대 가구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유형을 분류하여 양식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아쉬운 것은 화양절충식 가구의 분석이 주거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양식적 특징 분석에 그쳤다는 데 있다. 일본 현지 제작과 국내 제작 화양 가구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변형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국내 주거 환경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연구가 미치지 못했다.

## 참고문헌

- 김진송 (1999). 『서울에 만스홀을 허하라』. 서울 : 현실문화연구.
- 무애연구소 (1986). 『가회동, 최초 최후의 실측 조사 보고서』. 서울 : 고평시.
- 배만실 (1988).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서울 : 이화여대출판부.
-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서울 : 해안
- 전남일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 서울 : 돌배게
- 전봉희, 권용찬 (2012).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서울 : 동녘
- 최공호 (1996). 『한국 현대 공예사의 이해』. 서울 : 재원
- 최공호 (2008).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 서울 : 미술문화
- Hiroshi Kashiwagi (1992). 강현주 역 (1999). 『20세기의 디자인』. 서울 : 조형교육
- 강혜영 (2002). 「한국 근대 가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국선 (2004). 「한중일 주거문화맥락에서 본 전통 가구 디자인 특성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진옥 (2004). 「한국 전통주거건축과 가구의 조형적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아모레퍼시픽재단.
- 김진옥 (2006.). 한중일 전통가구의 유형에 따른 특성 비교연구. 『디자인학연구』, 66.
- 박민정 (1993). 「근대 이후 한국 주생활 변천에 따른 가구 형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영식 (1990). 「근대 이후 한국 가구의 양식 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태희 (2002). 「일제시대 가구 활용을 통해 본 주거실내공간의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아, 전봉희 (2005.8). 1920년대 일본의 문화주택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新作洋家具展集 (1943). 近代家具裝飾資料 第47編, 洪洋社